

1.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여기 QR코드를 찍으셔서 바로 등록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성경공부인 '길찾수(길을 찾아 만난 예수)' 성경공부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2. 아침묵상

디모데전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화,수,목,금 아침 6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3. 추수감사주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4. 소천

정재신 사모님의 모친께서 지난 주일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들께 하나
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지난 주 (11/16) 헌금 통계

선교구제 헌금란이 없는 이유는 매주 전체 헌금에서 5%를 선교구제비로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 보고서를 매월 첫째 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 액

\$850.00

tcc@togetherchus.org 201-580-4123 276 Haworth Ave, Haworth, NJ 07641

2025.11.23 (631호)

말씀의 빛
1:6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고, 나는 확신합니다.

TOGETHER COMMUNITY CHURCH
예수님을 머리에 사람을 가슴에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 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김주연
*주님의 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c	누가복음 21:1-4
특송	Special Song	맹은정
교회소식	Announcement	유형선
말씀선포	Sermon	과부의 두 렵돈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주일대표기도

11월 23일	11월 30일
이우선	윤원신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본당)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온라인) (방학중)
아침묵상	(화,수,목,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더 엄한 심판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이었길래 오늘날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많은 것입니까?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많은데 왜 이 세상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까? 왜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뭔가 믿음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거나 사실상 믿지 않는데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람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려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1차 선교 여행 중에 마가라고 하는 동행자가 선교지를 이탈해서 도망친 문제로 바나바와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2차선교 여행 계획이 전면 수정되고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북쪽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해 유럽땅에 건너가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어떤 계획이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기적같은 역사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데살로니가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너희 중에 다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즉 믿음은 결코 우리의 노력이 아닌 선물이요,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임을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믿고 있었을까요?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날마다 자신을 친다고 고백하면서 그 이유가 자신이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놓고 자신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가가 드러납니다.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를 확신하지 못하기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경된 자들은 자신을 부인하기는 커녕 오히려 종교생활을 통해 자기를 강화하고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는 바로 그러한 소경된 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 즉 다윗의 영광을 이 땅에 실현해줄 인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은 율법, 즉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면서 남들에게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때로는 약한 모습으로, 때론 강한 모습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권위를 내세웠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더 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 이유는 자기만 지옥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지옥 자식이 될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허락되어서 더 엄한 심판을 받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